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231-260
<https://doi.org/10.29212/mh.2020..115.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

이상호*

1. 적의 문건 수집 활동의 시작 : ATIS의 설립과 운영
2. 한국전쟁기 북한문건 수집의 체계적 정리와 정보화 :
ADVATIS의 활약과 ATIS의 분석
3.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
4. 맺음말

1. 적의 문건 수집 활동의 시작 : ATIS의 설립과 운영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문서가 공개된 1977년 직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후에야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을 뿐 문서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해당 주체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후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한노획문서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방선주 박사이다.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논문에서 노획문서와 연합군번역통역국(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이하 ATIS)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에 들어와 방선주는 「선별노획문서」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다시 한 번 ATIS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³⁾ 이후 국내에서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와 ATIS⁴⁾를 언급한 연구들이 일부 간행되었다.⁵⁾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ATIS의 창설과 활동, 그리고 한

-
- 1) Dae-Sook Suh,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1921-1952" Korean Studies, Volume, 1978; 桜井浩, 「朝鮮戰爭における米軍の『捕獲資料』について」, 『アジア經濟』, 아시아經濟研究所, 1983; 김학준, 「정권형성기(1951년 8월 15일~1948년 9월 8일)와 정권 초창기(1948년 9월 9일~1950년 6월 24일)의 북한 연구 I: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학회, 1985.
 - 2)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1)」, 『아시아문화』 창간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방선주,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국사관논총』 37, 국사편찬위원회, 1992;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2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3)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242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 국사편찬위원회, 2002.
 - 4) ATIS를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번역통역부', '연합군번역부', '연합통번역대', '연합국통번역대' 등으로 칭하고 있고, ADVATIS를 '선발번역통역소' 혹은 '연합군선발대번역소'로 칭하고 있다. 필자는 ATIS를 '연합군번역통역국'으로, 그리고 ADVATIS를 '연합군번역통역국전선파견대' 내지 'ATIS전선파견대'로 칭한다.
 - 5) 이상호, 「전후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일본인 귀환자 심문과 공산권 첩보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국사편찬위원회,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문서』 1~3, 국사편찬위원회, 2017;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군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국전쟁기 북한지역의 문서 수집과 포로신문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자.

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ATIS의 설립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42년 9월 19일 남서태평양육군총사령부(GHQ/SWPA)의 지령에 의해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는 ATIS가 창설되었다. 그 이전인 1942년 9월 3일에 한명의 장교와 8명의 사병으로 이루어진 미군이 브리즈번에 와서 번역통역대(TIS,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의 조직을 준비했다. 9월 19일 이 부대는 연합국의 요원들이 함께 조직됨으로써 연합(Allied)이라는 용어가 합쳐져 연합군번역통역국(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로 확장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⁶⁾

ATIS의 임무는 연합국 간 및 업무 간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투 중에 노획된 문서의 번역 및 분석, 포로에 대한 심문 및 조서 작성, 이러한 결과를 기관지(Bulletin), 회람(spot), 연구보고 등으로 인쇄 출판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동안 ATIS의 발간물의 양은 최대 200만 쪽에 달했다. 또한 ATIS는 추가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항복권고문서를 작성하고 방송, 항복문서조인을 둘러싼 회합에서의 통역 등을 제공했다. 즉 ATIS의 임무에는 비밀감시, 암호해독, 독도법, 무선감청, 전투서열 분석, 포로 심문, 일기, 편지, 중요 기사, 적의 시체로부터 확보된 수집품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6) "Progress Report(1944. 9. 14.)", ATIS, SWP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P" File, 1940-45, Box 336A.

있었다.⁷⁾

ATIS요원의 훈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군사첩보어학교(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 MISLS)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훈련하는 방식과, 일반대학의 위탁과정을 두고 여기서 어학요원을 배출하는 방식이었다.

ATIS요원들은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Presidio)에 있는 군사첩보어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계미국인(Nisei, 二世)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이었다. 1941년 11월 60명의 학생과 4인의 일본계교사로 구성된 군사첩보어학교가 설립되었다. 학생 가운데 2명만 백인이었고 나머지는 닛세이(二世)였다. 1942년 5월에 45명이 졸업했는데, 백인은 졸업 후 소위로 임관되었지만, 닛세이는 처음에는 트럭이나 지프운전수로 비(非)첩보부문에 배속되었다.⁸⁾

ATIS의 최고책임자(Co-ordinator)에는 매쉬버(Sidney F. Mashbir, 1891~1973)대령이 임명되었다. 1942년 1월 현역으로 복귀한 매쉬버는 호주로 보내져 한 달 만에 대령으로 진급한 후 1942년 10월에 ATIS의 책임자로 발령받아 1945년 12월까지 복무하였다.

ATIS의 규모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1945년 말에 가장 규모가 컸을 때에는 2,667명이 구성원으로 있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어학요원(Linguists)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부터 온 닛세이들로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여 180명 이상이 동성 무공훈장(Bronze Star)부터 수훈장(Distinguished Service Medal)까지 받았다.⁹⁾

7)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Y: Continuum, 2002.

8) 山本武利, 『日本兵捕虜は何をしやべったか』, 文藝春秋, 2002, 25頁.

9)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8. 7. 12.), *The Intelligence Series vol. V, A Brief History of*

Jayapura) 총사령부에 ATIS전선부대인 ADVATIS (Advanced ATIS)를 설립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ATIS는 29개의 유럽어와 아시아 언어를 취급했다. ATIS는 1945년 9월까지 적의 문건 및 포로심문조서 18,000건을 번역하고 16,000건을 출판했으며, 10,000명의 포로를 심사하여 779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¹⁾

전쟁기 ATIS는 단위부대에 어학요원을 파견하였는데, 보통 사단에 12명(장교 2, 사병 10), 군단에 15명(장교 2, 사병 13), 군단사령부에 전선파견대(Advanced Echelon) 20명(어학요원 15, 비어학요원 5), 군사령부에 20명(어학요원 15, 비어학요원 5)을 파견하고, 총사령부에 ADVATIS를 배속(어학요원 53명, 비어학요원 71명)하였다.¹²⁾

또한 후방인 미국 본토에는 미국 육해군 합동심문반(Joint Interrogation Center)을 조직했다. 합동심문반은 캘리포니아의 바이런 핫스프링(Byron Hot Springs)에 위치하며 캠프 트레이시(Camp Tracy)로 알려져 있다. 캠프 트레이시는 1942년 12월에 개설되어 1943년 1월부터 1945년 7월까지 3,500여명의 일본군 포로에 대해 12,000건의 심문을 수행했다.¹³⁾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11)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8.7.12.), The Intelligence Series vol. V, A Brief History of the G-2 Section, GHQ, SWPA and Affiliated Units,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Box 283.

12) "Progress Report(1944. 9. 14.)", ATIS, SWP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P" File, 1940-45, Nox 336A.

13) Alexander D. Corbin, The History of Camp Tracy: Japanese WWII POWs and the Future of Strategic Interrogation, VA: Ziedon Press, 2009, p.3.

에 있는 일본군 포로들은 전쟁 전기간 동안 완벽히 비밀로 처리되었다. 2년 반 동안 3,500명 이상의 일본군 포로를 심문했고, 심문을 통해 6,500페이지로 구성된 1,700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나. 일본점령정책과 ATIS : 공산진영에 대한 정보 획득

전쟁이 종료되고 남서태평양사령부가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이자 미태평양육군사령부(USAFJAPAC)로 재편되자 ATIS도 이에 따라 움직였다. ATIS는 1945년 9월 27일에 선견대를 도쿄에 파견하였고 1945년 10월 3일에 ATIS전선부대가 마닐라에서 도쿄로 이전하여, 1945년 11월 17일에 정식으로 도쿄에 ATIS 본부가 설립하였다. 1946년 3월에 GHQ/SCAP는 연합국군의 기관으로 ATIS의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미국 육군의 기관인 번역통역서비스대(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 TIS)로 활동은 계속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미군의 대대적 감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참모 제2부(G-2)의 명칭은 군사첩보과(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에서 첩보과(Intelligence Division)으로 변경되었다. 군사첩보서비스과(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 MIS)는 이 때 육군부 참모 제2부의 직속과로 설치되었다. 이는 주요 부서로 극동군 참모 제2부에도 설치되었다.

MIS의 주요 하부기관으로 TIS와 기술첩보대(Technical Intelligence: TI)가 설치되었다. TIS는 극동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아는 전쟁경험이 풍부한 번역자 및 어학요원으로 구성되고, 점령의 일일업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일본문서와 출판물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번역했다. 출판된 번역물은 SCAP참모부의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그들은 이 번역물로부터 일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향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 활용하였다. TIS는 해외로부터 귀환하는 일본인귀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도 담당하였다.¹⁴⁾

하지만 1946년 12월 이후, 소련 관리지역으로부터 귀환(引揚)이 시작되면서 ATIS의 활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¹⁵⁾ 이미 중앙심문센터(Central Interrogation Center, CIS)가 1946년 6월 2일에 미 태평양육군사령부(AFPAC)의 일반지령 26호로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SCAP, G-2회하에 설치되었다. 주요 심문은 소련군과 극동지역의 산업 활동, 그리고 시베리아 및 국경지역의 내부정보를 귀환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소련이 억류했던 일본군 포로의 송환은 G-2에게 소련과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¹⁶⁾

북한, 다렌, 튀순으로부터 오는 귀환자는 사세보로 들어왔다. 1947년 4월 소련으로부터 송환이 중단되었고, 이후 만주지역으로부터의 귀환자가 이곳으로 입국하였다. 사세보는 미 제1군단 산하 미 제24사단이 관할하였는데, 1946년 12월 5일 6명의 장교와 21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심문과견대를 설치하였다. 심문과견대는 1947년 2월에 장교 1명과 사병 4명으로 구성된 심문팀(Interrogation

14) 竹前榮治, 「GHQとインテリジェンス-MISと占領諜報との組織的關係」, 『現代法学』東京經濟大学現代法学会, 2014, 74~79頁.

15) 소련지역으로부터 귀환한 일본군 포로 및 민간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대공산권 정보를 획득한 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토 스스무에 의해 정리되었다. 하지만 사토는 주로 일본내의 문서를 활용하였고 이미 이 자료는 모리타 요시오에 의해 소개되었다. 佐藤 晉, 『大陸引揚者と共産圏情報-日美兩政府の引揚者尋問調査』, 増田弘 編著, 『大日本帝國の崩壊と引揚復員』,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16) "Effects of Personnel Allocation Policy on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1946. 6. 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Box 20.

Team) 14개와 지리국(Geographical Section)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에 5명의 전직 구일본군 정보장교가 배치되었다. 이 구 일본군 장교들은 “GHQ요원”으로 불렸고 이 가운데에는 러시아어 전문가가 포함되어 위조문서 발견이나 러시아지명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1947년 6월 미 8군 정보부(G-2)는 귀환항구의 심문기구를 개편하여 4개의 주요 첩보언어대(Intelligence Language Detachment)를 두고 그 산하에 31개의 심문팀(Interrogation Team)으로 재조직하였다.

2. 한국전쟁기 북한문건 수집의 체계적 정리와 정보화: ADVATIS의 활약과 ATIS의 분석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TIS¹⁷⁾는 1950년 7월 7일 한국전선에 배치할 ATIS전선부대(ADVATIS)의 조직을 서두르게 된다. 이들이 선발대로 파견되었고, 이후 ADVATIS의 조직은 확장되었다. ADVATIS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대구와 부산 동래를 주기지로 하며 주요 지역(서울, 인천)과 전투부대에 전방제대(ATIS Advanced Echelon)를 파견하였다. 즉 ADVATIS는 전선에 파견된 예하 부대인 전방제대(AE)를 통해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심문, 각 파견대 및 사단 파견대에서 보내오는 북한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하여 전략정보, 전술정보 등을 분류하고 이를 도쿄의 ATIS본부로 이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TIS전방제대의 북한문서 수집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7) 전쟁 발발과 함께 TIS의 명칭도 ATIS로 통칭되었다. 이는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연합군 형태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Allied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가. 북진 시 인디언헤드 부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전쟁기 북한문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구에서 수집되었다. 즉 미 제8군내 미 제2사단 병력으로 조직된 특수임무부대¹⁸⁾인 인디언헤드 부대(Task Force Indianhead), 미 극동공군사령부(U. S. Air Forces of Far East), 주한미8군(EUSAK) 정보참모부(G-2) 산하 정보대¹⁹⁾,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MIS산하의 ATIS이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1950년 10월 16일 미 제8군 G-2의 명령으로 미 제2사단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포스터 중령(Ralph H. Foster)을 지휘관으로 하여 조직되었다.²⁰⁾ 당시 미 제2사단은 각 예하 부대가 반격작전으로 낙동강을 거쳐 북상하던 중이었다. 사단 사령부는 10월 10일에 영등포에 주둔하였고 사단 예하 모든 부대는 예비집결장소에서 차후 명령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²¹⁾ 사단의 예하 부대인 제9연대는 평양지역에, 제23연대는 해주와 사리원 지역을,

18) 미국은 작전상황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주어진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는데 이를 Task Force로 통칭한다. 남정옥, 앞의 책, 477쪽. 사진에는 1명의 지휘관 밑에 여러 부대가 임시로 편성되어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사영어편찬위원회 편, 『군사영어사전』, 병학사, 864쪽, 1976.

19) 미 8군 G-2 산하에는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군사정보대가 있었다. 바로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etachment인데, 163d MISD, 164th MISD, 521st MISD, 522d MISD, 9군단 MISD 등 총 5개가 운영되어 포로에 대한 심문을 담당했다. Gordon L. Rottman, Korean war order of battle : United States, United Nations, and Communist Ground, Naval and Air Forces, 1950-1953, Prager Publishers, 2002, p.50.

20) "Personnel Periodic Report No. 9"(1950.10.2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1) "Activities Report for the Month of October 1950"(1950.11.7.), HQ 2d Infantry Division, G-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제38연대는 사단 포병대와 함께 영등포 지역에 주둔하였다.

이렇게 미 제8군의 예비부대인 미 제2사단의 예하병력으로 특수 임무대대를 조직한 것이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²²⁾

제72탱크 대대에서 1개 소대 차출 : 6대의 M-26탱크와 1대의
반궤도 차량

제2정찰중대에서 1개 소대 차출 : 2대의 M-24탱크와 한 대의
M-39 장갑 보병 수송차

제38연대에서 1개 보병중대 차출 : 중대장을 포함한 6명의 장교.
차량화 보병중대

1명의 장교와 14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공병폭파대 : 1대의 2.5톤
트럭과 1세트의 공병폭파물

제82방공포대에서 방공자동포 1개반 차출 : 1대의 M-16과
1대의 M-19

의무반에서 1명의 의사와 2명의 보조원으로 구성된 야전응급치료소(aid
station)²³⁾

제2CIC과견대에서 일부 요원

22) "War Diary 160001 Oct 50 - 162400 Oct 50, War Diary, HQ 2d Infantry Division, 1 Sep 50 ~ 31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3) "History(Division Medical Activities)"(1950. 11. 5.), HQ 2d Infantry Division Office of the Surgeon,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여기에 미 8군의 대표자 및 GHQ의 정보특수팀(intelligence specialist teams)이 추가로 구성되었다. 특수임무부대는 전부 차량 기동화 되었다. 10월 17일에 인디언헤드 부대는 사단의 제2정찰중대 지역에서 집결하였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공격 부대²⁴⁾와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문서를 수집(collecting)하고 분실되거나 파괴될지 모르는 가치(정부기록, 과학문서, 외국 강대국이 북한정책에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등)가 있는 정보를 확보할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²⁵⁾ 여기에 가능하다면 북한 인사를 생포하는 것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²⁶⁾

10월 19일 북한 수도인 평양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병사는 파커(E. V. Parker)병장이었다. 파커 병장은 인디언헤드 부대원이었다.²⁷⁾ 인디언헤드 부대는 10월 19일 평양 외곽까지 접근했으나 20일 오전까지 대동강을 건너지 못했다. 교량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오후 5시 50분경에야 한국군 병사로 구성된 소(少)병력이 공격단정으로 강을 건너고 나서야 경(輕)탱크를 이용하여 대동강 철교를 건널 수 있었다. 20일 밤 인디언헤드 부대는 평양에 있는 2곳의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했다. 한 라디오방송국에서는 신형 방송장비를 확보했고, 다른 곳에서는 북한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또 다른 장소에서

24) 공격부대는 미 제1기병사단의 선발대로서 인디언헤드 부대는 이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2, p.652.

25) "G-2 Section Narrative Summary October 19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6)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p.284.

27) "Command and Unit Historical Report"(1950.11.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상당량의 적의 문건을 노획했지만 번역하지는 못했다.²⁸⁾

인디언헤드 부대 요원들은 수집품(collection)과 기록물(recording of material)을 방해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인디언헤드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수많은 정보자료를 극동군사령부의 Special Team에 인계했다. 임무를 완수한 인디언 헤드 부대는 1950년 10월 25일 12:00 부로 해체되었다. 이후 모든 부대원들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²⁹⁾

나. 북한지역에서 ADVATIS의 활동

다음으로는 북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주요 문서를 수집, 분류, 적재, 이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ATIS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6월 29일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해공군의 투입을 결정했다. 곧이어 일본에 주둔한 미 제24사단 21연대의 제1대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여 파병하고, 본대인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선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TIS측에서도 ATIS전선부대(Advanced ATIS: ADVATIS)를 조직했다. 한반도에 3명의 장교를 포함한 조정반과 번역반 2개, 심문반 2개를 파견하는 것을 6월 30일에 결정했지만, 정식으로 ADVATIS가 발족했던 것은 1950년 7월 7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극동공군(FEAF)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28) "War Diary 210001 Oct 50 - 212400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 - 1993, Entry NM3 429, Box 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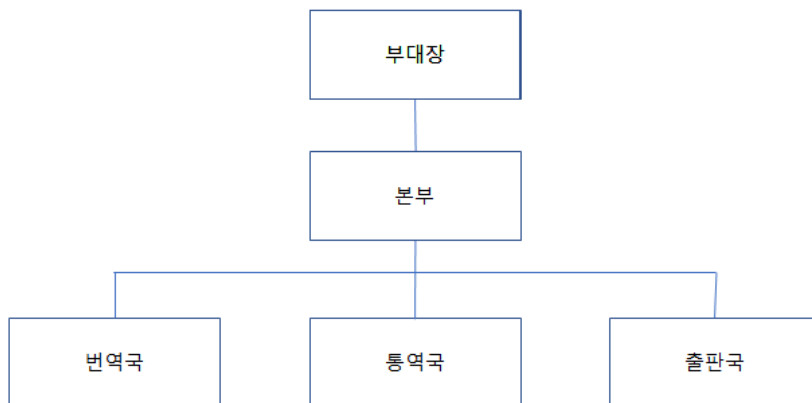
29) "War Diary 260001 Oct 50 - 262400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링거프로젝트(Wringer Project)반을 가동하여 이미 1950년 7월 4일에 한국군에 의해 붙잡힌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따라서 FEAF보다 뒤늦게 편성되어 전선에 파견된 ADVATIS는 7월 10일 FEAF의 담당자와 공동으로 포로에 대한 심문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1950년 7월 15일 ADVATIS는 금천(Kumchon)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헌병대 2층 건물에 주둔했다. 이 때 문순덕을 통역가로 임명했는데 이는 ADVATIS가 최초로 고용한 한국인이었다. 이날 ADVATIS는 심문보고서를 최초로 주한미군사령부 G-2에 보고했고, G-2는 미8군 사령부 하의 모든 심문 조직은 ADVATIS 부대장의 통제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³⁰⁾ 7월 17일 미8군 사령부와 ADVATIS 합동으로 심문센터(Interrogation center)를 수립하고, 한국군으로부터 인계받은 포로 10명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³¹⁾

30) "Status of ADVATIS"(1950. 7. 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1) "Records of Events, Advanced Echelon"(1950. 7. 8~10),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표 2] ATIS전선부대(ADVATIS Korea) [1950. 8. 2]³²⁾

7월 16일 ADVATIS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는 1950년 7월 16일 대전지역에 있던 미 제24사단 21연대에 의해 노획된 북한 문서였는데, 이는 북한군 제4사단장인 이권무의 서명으로서 예하 18, 16, 5연대에 6월 22일 발효된 정찰명령서였다.³³⁾ 이 문서와 함께 ADVATIS는 북한의 남침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 문서로 작전명령 1호를 입수하여, 제4사단 포병장교의 진술과 함께 이를 유엔에 제출할 특별보고서에 첨부시켰다. 이 작전명령 1호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제4사단이 38선 접경지역인 옥계리를 돌

32) "ADVATIS Presently in Kore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3) "Request for Information"(1950. 9. 1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파하여 의정부, 서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³⁴⁾

8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ADVATIS는 한국에 파병된 미군 각 사단을 방문하여 심문 조직을 정비했다.³⁵⁾

미 제1기병사단 : 장교 3명, 사병 21명

미 제24사단 : 장교 2명, 사병 21명

미 해병 여단 : 장교 2명, 사병 11명

미 제25사단 : 장교 4명, 사병 16명

미 제2사단 : 장교 3명, 사병 11명

8월 22일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총공격을 감행하려는 북한군의 기밀문서를 가지고 자진 귀순한 북한군 13사단 포병연대 정봉욱 중좌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³⁶⁾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북한군 포로의 수와 노획된 문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ADVATIS는 제한된 인원으로

34) "Documentary Evid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1950.10.11.),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16.

35) "Status and Employment of Div Linguists"(1950.8.11.); "Records of Events, Advanced Echelon"(1950.7.8~10),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6) "Telegram from ADVATIS, EUSAK to CO, TIS"(1950.8.23.),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ADVATIS의 또 하나의 주요 임무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심문이었다. 포로의 심문은 인천에서 가능한 한 3단계의 심문을 실행했다. 긴급한 현안 작전을 위해 전략적 심문(tactical interrogation)이 우선되었고, 10월말에는 중국군의 포로 심문도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노획문서의 수집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ATIS의 포로심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이 시작되자 ADVATIS에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었다. 바로 북한지역 내에 직접 투입되어 북한의 주요 문건을 입수, 분류, 이송하는 것이었다. ADVATIS의 문서과는 서울에 위치하며 북한 지역 내의 주요 문서를 수집했다. 1950년 10월 17일 평양으로 진격이 시작되자, 10월 19일 ADVATIS는 문서 수집팀을 파견했다.

한편 10월 12일 ADVATIS는 필리오드(Pilliod) 대령과 김종호, 박병욱 등 2명의 한국군 소위를 비행기로 원산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원산 지역의 북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필리오드 대령은 원산에서 우연하게도 러시아 서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양은 기대했던 것 보다 상당했는데, 약 2,000파운드에 달하는 양이었다.³⁷⁾ 이들의 활약으로 10월 15일부터 원산지역의 문서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원산 지역에서 입수한 노획문서 가운데 러시아 문서를 조사하기 위해 평양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크릴로프(Eugene B. Kryloff) 소령과 러시아 전문 번역가 3명이 급파되어 11월 4일까지

37) "Status of ADVATIS"(1950. 10. 2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러시아 문서를 조사하였다.³⁸⁾ 평양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팀들도 11월 13일까지 노획한 문서 전부를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고, 11월 30일 최종적으로 서울로 철수하였다.³⁹⁾

중국군의 공세로 인해 전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자, 1950년 12월 1일 ADVATIS는 전방에 파견된 전방제대(AE)의 번역팀 및 포로 심문가들을 모두 후방으로 후퇴시켰다. ADVATIS는 부산 동래에 사령부를 두었고, 서울과 인천 지역에 배치되었던 산하 부대를 모두 대구로 이동시켜 크릴로프 부대 산하로 배속시켰다.⁴⁰⁾ 12월 2일 현재까지 ADVATIS가 수행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였다. 9만 5천명의 포로를 1차 심사했으며, 그 가운데 1760명의 포로들에 대한 심문을 수행하였고, 2788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문서 수집에 있어서는 18톤에 해당하는 노획문서를 정리, 평가, 번역하였다.⁴¹⁾ 이렇게 한국전쟁기 ATIS는 ADVATIS를 파견하여 한국전선에서 포로심문, 주요문서의 번역 등을 통한 전략 및 전술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당시 주한 미8군, 극동공군, 국무부 심문팀(State Department Interrogation Team, ORO)등 공산권 자료를 확보하

38) "Message From CG X Corps to CINCFE"(1950.1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39) "Pyongyang Special Project"(1950.11.13.),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40) "Status of ADVATIS"(1950.12.2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41) "Message from Stark to Willoughby"(1950.12.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16.

려는 다양한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여 이들이 입수한 주요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선적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안전하게 본토로 이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활약하던 ATIS는 1951년 2월 4일 제8238육군부대로 재조직 되었으며, 12월 1일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 8238th Unit)로 재편되었다. 이후 MISG는 1952년 9월 1일 500군정보대(500th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로 다시 개편되어, 한국전쟁이 정전에 이르기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⁴²⁾

다. 노획문서의 종류와 체제

그럼 여기서서는 북한노획문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자. 현재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문서는 약 2,607Box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노획문서는 주제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건설계획, 경제, 고전문학, 공산당의 역사와 활동, 공업, 농업, 북한군, 북한법원, 사회학, 산업, 소련과 소련위성국인 동유럽에서의 생활, 선전, 수학, 영화, 의학, 정치, 조러무역, 중국인민지원군, 지리, 항해, 항공학, 현대문학 등이다. 노획문서의 형태별로는 서신, 공문서, 사문서, 인쇄물(책, 신문, 연간물), 회보, 사진 등이다. 언어별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것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불가리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등이 있다. 여기서 동유럽계통의 언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북한의 대 동유럽 관계를 엿볼 수 있다.

42) "Lineage and Battle Honors Intelligence Support Complement, 8238th AU", RG 338, Record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Box 4834.

북한노획문서는 정보의 내용 면에서 3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러시아 자료이고, 둘째는 노획된 북한문서이며, 셋째는 노획된 적의 문서이다. 러시아 자료와 노획된 북한문서는 SA(Shipping Advice) 선적문서로 분류되어, SA2001부터 2013까지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총 분량은 2,394박스이다. 세 번째인 노획된 적의 문건으로 분류되는 문서들은 6개의 숫자가 부여되어 200001부터 208072까지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총 분량은 173박스이다.

노획문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문서를 전부 번역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관리되었다.⁴³⁾ 아래의 문서 평가에 있어서 B나 S그룹으로의 최종 인가는 ATIS만이 할 수 있었다.

- A - 전역에 전술 및 전략적 가치를 가진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
- B -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
- S - 전역수준이나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를 가진 문서들
- C - 군사적 가치가 없는 문서들.

각 문서분류에 따라 개략적인 북한노획문서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자료[Russian materials captured in Pyong Yang]
SA 2001~2004 [1,123boxes]

43) "Examination of Captures Documents",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평양의 소련기관으로부터 입수. 세계문학, 예술, 음악, 기술, 정치 등에 관한 러시아 책을 포함한 도서관 자료

■ 노획된 북한문서[Captured Korean Documents]⁴⁴⁾

SA 2005~2013 [1,218boxes]

일기, 팸플릿, 신문, 전단, 포스터, 지도, 청사진, 오버레이, 투명도, 사진 등

SA 20181 [9boxes]

구일본 해군 수로국에서 1937~45년 작성한 책, 연간물, 소책자

SA 19177 [24boxes]

일본어 문서

An Additional 11 shipping advices [47boxes]

책, 연간물, 소책자

■ 노획된 적의 문건[Captured Enemy Documents]

SA200001~208072 [186boxes]

대부분 한국어로 된 문서들로 잠재적인 정보 가치를 가지는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들은 ATIS에 의해 번역이나 발췌 또는 요약되어 “Enemy Documents”나 “Bulletin, Enemy Documents, Korean Operations”로 발간되었다. 일부 SA번호 사이의 공백은 지도와 같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인계되기 전에 삭제된 것이다.

■ 영화

242-MID [2,576items]

친소-반미를 나타내는 북한 영화

44)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북한관계사료집』 시리즈로 간행되었다.

3.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

가.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자료 현황

한국전쟁 자료총서 73~74권에 수록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20만 단위의 노획된 적의 문건(Captured Enemy Documents)에서 발췌하였다.⁴⁵⁾ 이 자료군은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산하 군정보부(MIS)의 ATIS가 정리한 것으로 시기상으로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재임하던 1950년 6월부터 1951년 4월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즉 ATIS가 번역한 “(적의 문건) Enemy Documents” 가운데 북한군(North Korean Force) 주제의 문서철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북한군(North Korean Force)’는 Issue No. 1~Issue No. 31로 이루어진 31권과 보충문건인 Issue No. 1~Issue No. 5로 총 36권으로 이루어졌다.

본 자료집에서 다루는 “적의 문건 : 북한군”의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45) 그동안 20만 단위의 북한군 노획문서는 방선주 박사에 의해 그 실체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방선주 박사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실제 북한 노획문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 극동군사령부는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문서를 전체 이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선별노획문서>에서 결락되었던 부분의 다수가 이번에 확인한 ATIS의 “적의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 자료 현황(Issue No. 1 ~ 31)

연번	생산날짜	수록 문서번호	매수
Issue No. 1	1950. 9. 26.	200326, 200262, 200272	34
Issue No. 2	1950. 10. 5.	200320, 200329, 200337, 200338, 200339, 200344, 200377, 200376, 200401, 200454, 200455	21
Issue No. 3	1950. 10. 12.	200047, 200419, 200446, 200449	29
Issue No. 4	1950. 10. 21.	200525, 200501	7
Issue No. 5	1950. 10. 31.	200572, 200570, 200571, 200566, 200575, 200593, 200602	25
Issue No. 6	1950. 11. 8.	200687, 200686	33
Issue No. 7	1950. 11. 16.	200714	1
Issue No. 8	1950. 11. 22.	200655, 200780	18
Issue No. 9	1950. 11. 27.	200811, 200817, 200774, 200738, 200792	28
Issue No. 10	1950. 12. 6.	200872	5
Issue No. 11	1950. 12. 13.	200656, 200915, 201371	71
Issue No. 12	1950. 12. 19.	200936	3
Issue No. 13	1950. 12. 26.	200117	20
Issue No. 14	1950. 12. 29.	200118	33
Issue No. 15	1951. 1. 3.	200118, 200884, 201100, 201021, 201103	62
Issue No. 16	1951. 1. 10.	201030	3
Issue No. 17	1951. 1. 13.	200812, 201310	21
Issue No. 18	1951. 1. 19.	200691	33
Issue No. 19	1951. 1. 30.	201312, 201197	2
Issue No. 20	1951. 2. 3.	-	-
Issue No. 21	1951. 2. 6.	-	-
Issue No. 22	1951. 2. 8.	201517	6
Issue No. 23	1951. 2. 13	200904, 200814, 201936	137
Issue No. 24	1951. 2. 16.	-	-
Issue No. 25	1951. 2. 21.	-	-
Issue No. 26	1951. 2. 26.	200809, 201893	30
Issue No. 27	1951. 3. 7.	200892, 201586, 201587, 201961, 201949	23
Issue No. 28	1951. 3. 11.	-	-
Issue No. 29	1951. 3. 17.	201071, 201886, 201765, 202028, 202051	52
Issue No. 30	1951. 3. 21.	200898	42
Issue No. 31	1951. 4. 3.	-	-

위 목록에서 보듯이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의 주요 문서는 총 71건에 960여 매이다.

추가로 ATIS 적의 문건에는 보충자료(Supplemen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적의 문건 가운데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군을 전부 완역하여 회람하였다. 이 기간 중에 발간된 보충문건은 총 5건에 430매이다.

[표 4]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 자료 현황(보충문건)
(Supplement Issue No. 1 ~ 5)

연번	생산날짜	수록 문서번호	매수
Issue No. 1	1950. 10. 17.	미상의 북한군 사단에서 작성한 군대 표식 및 재래식 무기 표시	30
Issue No. 2	1950. 10. 25.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1949년 작성하여 발행한 통신 매뉴얼	139
Issue No. 3	1950. 12. 5.	개전 이후 한국군의 통신을 감청한 소련군 고문단 무르쨌 중위의 보고서	100
Issue No. 4	1950. 12. 16.	중국인민지원군의 지뢰 매설 방법, 전략 등	32
Issue No. 5	1950. 12. 13.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참모부 작성 매뉴얼	132

나.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주요 내용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의 주요 문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12가지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해당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① 작전명령서철

주요 작전명령서철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 전후 발행한 북한군 작전명령서이다. 1950년 6월 23일에 발행한 북한군 제783부대의 전투명령서[200817], 1950년 6월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301103] 등이 있다. 둘째, 낙동강전투 시기에 발행한 명령서이다. 북한군 제4사단이 발행한 작전명령 제52호로 안동에서 함창으로 진격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200419], 북한군 제9사단의 1950년 8월 28일의 낙동강 도하계획[200501] 등이 있다. 셋째, 유엔군이 북진하여 북한군의 방어가 긴급히 필요해지던 시기의 명령서이다. 1950년 8월 1일의 북한군 제317포병부대의 인천방어문건[200602], 1950년 9월 4일의 인천방어 정찰명령서[200455], 9월 8일 북한군 제226부대의 인천방어계획[200454], 1950년 9월 22~30일의 함경남도 방어사령부의 방어전투계획[201936], 1950년 10월 13일 평양지구방어사령부의 정찰지령서[200915] 등이 있다.

② 일기류

일기류는 북한군 각 사단과 연대의 이동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특히 각 일기류에 나타난 해당 병사들의 일기 내용에는 부대 사기, 부대의 사상자, 전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어 전쟁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쟁 이전인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이동로 및 소속부대의 피해상황을 기술한 리홍식의 일기[200272], 대전에서 낙동강까지의 이동로를 기술한 최성환의 일기[200320], 인천에서 진주까지 이동로를 기술한 윤행기의 일기[200329], 북한군 게릴라 부대원이었던 이건창이 1950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동로를 기술한 일기[200344] 등 남침 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10여 종의 일기와 유엔군 북진 시 후퇴하던 북한군의 이동 및 상황을 알 수 있는 1950년 11월 4일부터 1951년 1월 7일까지의 김혁록의 일기[201893] 등이 있다.

③ 북한군의 유엔군 포로 취급 및 시설

6·25전쟁 초기전투에서 북한군은 미군을 포로로 획득했다. 북한군은 이들 미군 및 국군 포로 취급과 포로 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명령문으로 하달했다. 이 가운데 1950년 7월 20일 김책 전선사령관과 강건 총참모장의 연명으로 하달된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규정[200525]이 있다. 포로수용소 설치에는 10시간 노동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프로그램으로 각종의 선전 활동이 언급되고 있다. [200338]

④ 미군포로 신문기록

노획문서에는 북한군이 사로잡은 미군 포로에 대한 신문기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집에는 Samuel Esudu[200572], Larey[200570], 미상[200571], Kaeraetu[00566] 등의 신문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투규정 및 상학교재

북한군 노획문서에는 전투규정과 상학교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1950년 6월 남침을 앞두고 정신 무장을 강조하기 위해 발행한 정치상 학교재[주제: 조선인민군은 해방의 군대] [200047], 전투 중 도망자 처벌에 대한 규정 [200575], 1949년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발간한 보병전투규정(1부와 2부로 구성) [200117, 200118], 1950년 10월 14일 김일성과 박헌영 연서로 작성한 북한군에게 보내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201312], 청천강 지역에서 기갑부대 운용을 명령한 제105전차사단장 류경수의 전투명령 제5호[201586] 등이 있다.

⑥ 북한해군

북한군 노획문서에는 해군에 관한 훈련일지, 훈련계획서 등이 완역(Full Translation)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북한해군의 훈련 및

전쟁 초기 훈련 및 전투계획, 전투보고서 및 부대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북한해군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50년 6월 10일 영흥만 일대에서 이루어진 북한군 제2정대의 항해 훈련 계획서[200811], 1950년 4월 북한군총참모부가 수행한 북한 해군의 함대 검열[200884], 북한해군 제3정대의 전투배치 계획표[200812],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작성된 북한해군 제599부대의 전투보고서[200691], 북한해군 제599군부대의 1950년 8월 전투일지[200904], 북한해군 제2정대의 총직일관이 1950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작성한 부대일지 [200814], 전쟁을 앞두고 195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수정한 북한해군 제1전단의 작전임무 보고서[200898]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⑦ 북한공군

노획문서에는 다량의 북한공군의 비행 노트, 학습 제강 등이 있다. 하지만 ATIS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 위주로 번역하여 정보로 활용하였다. 1950년 YAK-9, YAK-11 등을 운용하여 훈련한 제887공군 부대의 훈련 파일[200655], 1950년 9월 5일 평양 근교인 강동군에 새로운 공항 건설을 명령한 명령서철[200738], 추격기 연대의 대대 훈련보고서철[200656] 등이다.

⑧ 러시아 문서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주요 문건 가운데에는 군 전술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소련이 분석했던 미군의 사단 편제 및 조직에 대한 평가서[200687], 1950년 작성된 3단계로 이루어진 북한군의 남침 공격계획[200686], 소련 신문 프라우다가 1950년 8월에 발간한 잡지에 실린 전 서울주재 소련영사 샤브시나의 논문 “한국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201517]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⑨ 중공군 문서

중공군 문서는 주로 전투보고서, 전투 종결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스촨 지역의 서부 군구에서 김일성을 응원하는 편지[200714], 중공군 제66군의 운산지구 전투결과 총결 보고서[201371], 연길 출신의 중공군 김호길이 1947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이동로를 작성한 일기[201021], 중공군 소부대 야간 전투 자료[201961], 1951년 1월 24일에 작성된 중공군의 백운산 일대의 전투명령서철[201949], 1951년 1월 9일 작성한 중공군 제38군의 제3차 전역 경험 총결 보고서[202028] 등이 있다.

⑩ 보충문건

이 자료집에 수록된 보충문건(Supplement)는 총 5건으로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북한 및 중공군이 발간한 매뉴얼을 중심으로 발췌 및 완역을 하였다. No. 1은 북한군 사단(미상)에서 작성한 부대 표식 및 재래식 무기 표시를 담은 문건이다. No. 2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1949년 작성하여 발행한 통신 매뉴얼로 통신 일반규정, 전투 시 지켜야 할 통신 규정 등을 수록하고 있다. No. 3은 소련 고문관인 무르젠(Murzin) 중위에 의해 작성된 무선 감청보고서이다. 이 감청보고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군 전방사단(6사단, 3사단)의 무선 보고뿐만이 아니라 육군본부, 해군부대, 각 행정부서(법무부, 사회복지부 등)의 무선보고도 감청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보면 당시 개전 후 북한군(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은 전방의 국군 부대뿐만이 아니라 육군본부 및 행정 부서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No. 4은 1950년 8월 진주 부근에서 노획한 중국어로 쓰여진 문서로 지뢰 매설 방법 및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진주 부근에서 활동한 북한군 제6사단(방호산)은 중국인 민해방군 제165사단이 북한에 들어와 부대를 변경한 것으로 다수가 중

공군의 전투 기술과 기재를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No. 5은 1949년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참모부 야전 매뉴얼로 참모부의 조직, 운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기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문서 가운데에는 1947년 6월 28일 북한 인민 위원회 결정으로 작성한 청진항을 30년 동안 소련 해운회사에 양도하는 지시 문건[200852], 박헌영 결혼식의 북한 당, 군 주요 직위자 좌석 배치도[200792], 남한지역에 밀파된 공작원 명단[201100], 강건 사망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애도문[201197] 등을 수록하고 있다.

4. 맺음말

ATIS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미국 남서태평양 육군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 이후 일본점령과 한국전쟁기에 운영되다가 1951년 12월 군사정보단(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으로 재편되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 임무도 인계되었다.⁴⁶⁾

이렇게 한국전쟁기 ATIS는 산하 부대로 ADVATIS를 파견하여 한국전선에서 적의 문건과 포로심문을 통해 적의 전투서열과 작전 계획, 병참 관련 정보 등 전쟁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 및 사보타주 등의 활동까지 전개하여 전쟁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심문 및 각종 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전략정보(Tactical Intelligence) 및

46) 정용욱, 『6.25전쟁 전후 NARA 한국 관련 자료의 활용 현황 및 과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2007, 45쪽.

지리정보(Geographic Intelligence)로 분류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후 ATIS는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로 재편되었고, 다시 500군정보대로 개편되어 정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